

한류 드라마·영화콘텐츠에 나타난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에 따른 현대적 이본 산생의 통시적 맥락과 한·중 몽유서사문학콘텐츠 공유맥락의 글로컬리티

권도경 (성결대)

1. 문제설정의 방향

한한령(限韓令)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 <응답하라1988>· <구르미 그린 달빛1998>·<푸른 바다의 전설>·<시그널>·<도깨비>·<터널>· <듀얼> 등의 한류드라마 열풍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적인 개입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열풍의 상대적인 강도는 세졌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상기 6편의 중국 내 인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9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중 양국에서 공유되었던 몽유(夢遊) 서사원형¹⁾이 재매개화 (reparametrization)²⁾ 된 콘텐츠라는 사실³⁾이다. 이들 몽유서사원형의 재매개화 한류드라마콘텐츠의 기원은 현재까지도 중국 인기 동영상 검색 순위의 탑랭크를 놓치지 않고 있는 2000년대 불세출의 명작 <가을동화>로까지 소급된다. <가을동화>는 역시 한·중 양국에서 공유되었던

-
- 1) 통시적 매체전환에 따른 현대적 이본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재매개화를 위한 서사적 소급원천으로서의 서사원형의 개념은 권도경, <고전서사문학의 문화콘텐츠화 양상과 새로운 방안의 모색>, 2006년도 숭실학술재단 한국학 저술지원사업 계획서, 2005에서부터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권도경, <고소설 <장화홍련전> 원형서사의 서사적 고정관념과 영화 <장화, 홍련>에 나타난 새로쓰기 서사전략>, 2013년도 강남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3.05.31.에서는 원형서사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개념체계는 서사원형과 동일한 용어로서 사용하였다. 최근에 강공숙,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난 중국 애정서사의 원형(原型)과 변용>, 『한국학연구』 5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과 같은 논문에서 서사원형 개념을 인용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인용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 2) 영문번역어를 remediation으로 하는 재매개화 개념은 권도경, <한류 게임 <바람의 나라>와 고구려 신화의 게임 서사적 변용>, 겨레어문학회 2012년도 상반기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2.08.02. ; 권도경, <<대무신왕신화>의 영웅일대기와 게임 <바람의 나라>의 영웅시스템, 그 서사적 상관성과 신화성>, 『한국학연구』 4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09.30.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권도경, <국문학콘텐츠의 역사와 4차 산업>, 2017년도 한민족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17.08.24.)에는 동일한 영문번역어를 사용하되 이론 기반과 함의가 다른 재매개화의 차별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reparametriz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사원형의 재매개화 원리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설명은 권도경, <현대재매개화콘텐츠의 고전문학사적 위치 규정을 통한 고전문학의 통시적 전변론>, 『인문논총』 제73권 제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을 참고 바람.
 - 3) 동아시아 문학의 공유 블록의 통시적 전통 속에서 한류드라마의 향유 배경을 설명해낸 연구는 다음에서 시작되었다. 권도경, <한류 이후 동북아시아 드라마·영화콘텐츠 원류로서의 한국고전서사>, 국제어문학회 2012년도 하계 학술대회 논문발표문, 2012 ; 권도경, <the production of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Southeast Asia and the narrative code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Presentation for The Six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2012 ; 권도경, <한류와 동아시아 애정전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2013년도 봄 학술대회 논문집, 2013.03.30. ; 권도경, <동남아 한류드라마의 한국고전문학 재생산과 한(韓)·동남아(東南亞) 서사코드>, 『아태연구』 20권 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3 ; 권도경, <드라마 <가을동화>의 애정전기서사원형 재생산과 동아시아 한류 드라마적 탄생 배경>,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 권도경, <Korean Classical Narrative as Headstream of Northeast Asian Korean Wave Drama and Experience of Literature Sharing between Korea and Northeast Asia>, Present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3 ; 권도경, <동북아 한류드라마 원류로서의 한국고전서사와 한·동북아의 문학공유 경험>, 『동아연구』 제3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애정전기소설의 문학 전통과 서사원형의 연맥이 닿아 있는 드라마콘텐츠이지만, 애초에 한국 내에서 몽유서사가 몽유록계 몽유서사와 몽자류소설계 몽유서사로 분화되기 이전 단계부터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말여초부터 15세기 『금오신화』까지 전기소설계 몽유서사라는 점에서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한한령기 한류드라마콘텐츠가 2000년대 한류드라마 콘텐츠의 시작점이 되는 <가을동화>와 갖는 상호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2010년대 중·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 드라마·영화콘텐츠의 출현은 비록 한국고전서사문학의 오리지널 텍스트와 프로토타입에 통시적인 서사적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대적으로는 국내로 수용되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유통된 2010년대 초반기 <보보경심> 같은 중국 드라마의 문화적 도전과 대한 일종의 응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2010년대 한·중 드라마·문화적 도전과 응전은 한·중 사이에 공유되어온 몽유서사의 전통 사실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류 이후 한·중 문화콘텐츠의 영향 관계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스트림만 존재한다고 인식하지만 2010년대라는 시기를 전후 맥락 없이 잘라서 단선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중·후반기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 드라마·영화콘텐츠의 폭발적인 창작과 인기는 중국 드라마 <보보경심>이 자극한 몽유서사원형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 앞서 2000년대 일부 한류 드라마콘텐츠에서 확인되는 몽유서사원형이 1990년대 한국 영화콘텐츠에서 확인되는 그것을 장르만 전환하여 서사적으로 계승한 것인 동시에,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대중문화계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종의 향류(香流)⁴⁾를 형성하고 있었던 홍콩영화에 나타난 중국 몽유서사원형과도 일정한 영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2. 한국 드라마·영화콘텐츠에 나타난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와 현대적 이본 산생 원리

한국 드라마·영화콘텐츠에 재매개화 된 몽유서사원형으로서의 한국몽유서사는 단일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환몽구조계열과 몽유구조계열로 크게 분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환몽 구조 계열에는 <구운몽>을 필두로 하여 <옥련몽>·<옥루몽>으로 이어진 이른바 몽자류소설이 속하는 것으로, 현실-꿈-현실로 이어지는 액자 형식은 몽유구조계열과 동일하나 액자 밖의 주인공과 몽유자가 각기 다른 인물로서 동일한 자의식을 지니지 않는 데다, 일대기의 방대한 서사적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몽유지사를 일장춘몽으로 돌리는 지향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후자의 몽유구조계열은 입몽·각몽과 ‘몽유록’이라는 제명을 명시적인 지표로 함과 동시에 입몽·각몽 전후의 화자가 몽유자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몽중현실이 과거이거나 이미 죽은 인물들과 관련된 일종의 유사죽음 상태이면서도 현실의 시간과 일정한 연결고리를 지니면서 현실개선을 희구하는 의식지향의 시공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몽유구조계열에는 일반적으로 <취유부벽정기>·<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 같은 일부의 15세기 전기소설과 1910년대까지 지속된 애국계몽기 몽유록 등이 포함된다고 논의되어 왔는데, 기실 후자의 몽유록이 몽유구조계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전자의 전기소설

4) 홍콩의 한자어가 향항(香港)이라는 점에서 홍콩 영화콘텐츠의 한국 내 유행을 향류로 명명해 볼 수 있다.

쪽으로, 이미 죽은 사자의 여귀·몽녀·반인반수를 현실세계 속에 일시적으로 구축된 유사죽음의 과거 시공간 속에서 의사몽유를 통해 직접 만나는 나말여초 애정전기소설인 <최치원>·<김현감호>·<조신>이나 15·6세기 애정전기소설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하생기우전>은 물론, 유사몽유자가 되는 주인공이 이계인물을 만나지 않고 시종일관 현실세계 속에 거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죽은 허구의 인물이거나 혹은 이계의 허구인물인 것처럼 현실의 환경세계를 운위하는 일반적인 현실적 논리로부터 고립되어 유사죽음 상태에 있는 인물들 간의 만남이 주조가 되어 있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애정전기소설 역시 유사몽유 구조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한 번도 몽유구조계열의 서사적 특징으로 주목된 적이 없지만, 현실 화자의 자아와 일치하는 몽유자가 현실의 시공간과 일정한 영향관계에 있는 유사죽음의 과거 시공간을 몽유를 통해 단선 혹은 중첩적으로 왕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구 판타지·SF물 등의 유형적인 클리셰로 인지되어 온 타임슬립(time slip)과의 유관성을 규정할 수 있게 한다. 2010년대인 현재, 한국의 무수한 드라마·영화콘텐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타임슬립은 판타스틱 한 클리셰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상업적 성공작이면 타임슬립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향유의식마저도 유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몽유구조계열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층위에 따라 타임슬립의 패턴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몽유의 방향성이다. 몽유자인 현재의 주인공이 이계인 과거의 의사죽음 시공간으로 타임슬립 해가는 패턴과 과거의 역사적·허구적 사자 혹은 이계인물이 주인공이 위치해 있는 현재의 시공간으로 타임슬립 해오는 패턴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전자에는 몽유자인 주인공이 현재의 시공간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직접 현실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과거의 몽중 시공간으로 직접 타임슬립 해 가는 대부분의 몽유록과 <운영전> 같은 일부 애정전기소설이 속하며, 후자에는 이미 죽은 역사적·허구적 데드맨이나 이계인물이 직접 몽유자인 주인공이 위치한 현재로 타임슬립 하여 찾아옴으로써 현실세계 속에 일시적으로 유사죽음의 과거 시공간 혹은 이계 시공간이 펼쳐지는 <조신>·<취유부벽정기>·<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하생기우전> 같은 일부의 애정전기소설과 <피생명몽록> 같은 예외적인 몽유록이 해당된다.

둘째, 몽유의 행위성이다. 타임슬립 이후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몽유과정이 어떠한 행동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세부적인 패턴의 차이가 된다. 하위 패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주인공인 몽유자가 타임슬립 하여 자신과 내·외면이 닮은 몽중인을 만나 내적 결핍감을 해소해줄 애정을 성취하는 애정성취 지향적 행위 패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현실세계에서 펼치지 못한 채 불우하게 살던 자신의 재능을 타임슬립 이후 인정받아 득공이나 성취의 기회를 얻는 영웅입공 지향적 행위 패턴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은 타임슬립 이후 주인공인 몽유자가 패배·실패한 과거의 역사적·허구적 사건과 관련된 몽중인물들을 만나 사건의 전말을 복기·포편함으로써 숨겨진 이면의 사정·진실을 드러내는 한편 현재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현실세계에 반면교사로 삼을 비판적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개인적·집단적 해원을 이루어내는 유사공안(類似公案) 지향적 행위 패턴이다. 애정성취 지향적 행위 패턴에는 나말여초의

〈최치원〉·〈조신〉·〈김현감호〉부터 15·6세기의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를 거쳐 18·9세기까지 지속된 애정전기소설이 속하며, 영웅입공 지향적 행위 패턴에는 〈대관재기몽〉·〈남염부주지〉 등이 해당하며, 유사공안 지향적 행위 패턴에는 〈강도몽유록〉·〈피생몽유록〉 등이 해당한다.

셋째, 몽유의 반복성이다. 타임슬립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중첩되는 경우다. 여기에는 타임슬립의 횟수와 타임슬립 이후 생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하위 패턴 분류법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타임슬립 횟수에 따른 패턴 분류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타임슬립이 일회에 그치는 패턴에 해당하는데, 일부의 작품에서 타임슬립이 반복되는 패턴이 확인된다. 비록 현실세계에 살고 있으나 환경세계와 화합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던 주인공에게 이미 한번 죽었던 여귀가 명계로부터 현실세계에 일시적으로 구축된 유사몽중 세계로 타임슬립 해 왔다가 다시 현실세계의 다른 인간으로 환생 하거나 혹은 동일한 자의식을 가지고 현실세계의 같은 인간으로서 생명을 얻어 재생함으로써 재차 타임슬립하는 〈만복사저포기〉·〈하생기우전〉이 이에 해당한다. 주인공인 몽유자가 사후 세계인 염라부로 타임슬립 했다가 염라왕의 왕좌를 승계받기로 한 뒤 일시적으로 현실세계로 복귀한 뒤 죽음으로써 염부로의 타임슬립이 다시 암시되며 열린 채 끝나는 〈남염부주지〉도 타임슬립 반복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몽유의 재생성이다. 타임슬립 이후 생의 형태에 따른 패턴에는 현생형·내생형·환생의 세 가지가 있다. 타임슬립의 왕복으로 현재로 돌아온 주인공 몽유자의 삶이 현실세계 속에서 부지소중 혹은 현재 삶의 지속으로 결말을 맺는 대부분의 전기소설·몽유록이 현생형의 패턴에 해당한다. 내생형은 타임슬립하여 주인공인 몽유자의 현실세계 속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여귀가 몽유의 종결과 함께 현생에서의 재회의 종식을 선언하되 내생에서의 재회가 예고되지 않는 패턴으로, 〈이생규장전〉·〈남염부주지〉가 해당한다. 환생형은 명계로부터 현실세계에 일시적인 구축된 유사죽음의 몽유공간으로 타임슬립 하여 몽유자인 주인공과 만났던 여귀가 현실세계에 축조된 임시 몽유공간으로부터 다시 재타임슬립하여 현생의 인간으로 환생하는 패턴으로, 〈만복사저포기〉·〈하생기우전〉이 속한다.

한국 드라마·영화콘텐츠에 재매개화 되어 있는 몽유서사원형은 모두 몽유구조 계열에 해당한다. 일단, 대략의 목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1]

① <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가을동화><시월애><번지점프를 하다><봄날은 간다><중독><겨울연가><여름향기><파리의 연인><봄의 왈츠><시크릿 가든><인현왕후의 남자><옥탑방 왕세자><응답하라1997><신의><별에서 온 그대><나인><구가의서><너의 목소리가 들려><구르미 그린 달빛><푸른 바다의 전설><응답하라1998><시그널><도깨비><명불허전><사임당-빛의 일기><어느날><빙구><내일 그대와><터널><다시 만난 세계><하백의 신부><듀얼><맨홀-이상한 나라의 펄><보그맘><당신이 잠든 사이에>

② ㉠1990년대:<은행나무침대><접속>

㉡2000년대:<가을동화><시월애><번지점프를 하다><봄날은 간다><중독><겨울연가><파리의 연인>

㉔2010년대:〈시크릿 가든〉〈인현왕후의 남자〉〈옥탑방 왕세자〉〈신의〉〈별에서 온 그대〉〈나인〉〈구가의서〉〈너의 목소리가 들려〉〈구르미 그린 달빛〉〈푸른 바다의 전설〉〈시그널〉〈도깨비〉〈명불허전〉〈사임당-빛의 일기〉〈어느 날〉〈빙구〉〈내일 그대와〉〈터널〉〈다시 만난 세계〉〈하백의 신부〉〈듀얼〉〈맨홀-이상한 나라의 필〉〈보그맘〉〈당신이 잠든 사이에〉

[자료1]-②는 [자료1]-①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창작시기별로 단계화 시켜 재정리 한 것이다. [자료1]-②-㉔가 바로 2010년대 현재 한국 드라마·영화콘텐츠를 휩쓸고 있는 몽유서사원형의 재매개화콘텐츠가 된다.

그런데 [자료1]-②-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몽유서사원형의 재매개화콘텐츠가 시작된 시점은 1993년 재자가인소설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드라마 〈질투〉로부터 시작된 한류가 〈모델〉·〈별은 내 가슴에〉 등과 같이 재자가인소설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드라마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간 가운데, 가문소설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목욕탕집 남자들〉·〈보고 또 보고〉와 영웅소설서사원형이 서브서사원형으로 가미된 가정소설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드라마 〈의가형제〉와 여성형 가정소설서사원형의 대명사인 궁궐궐전서사원형을 프로토타입으로 한 드라마 〈토마토〉를 거쳐, 허준설화 서사원형을 오리지널 텍스트로 하되 민중영웅설화서사원형을 메인서사원형으로 하는 드라마 〈허준〉으로 마무리 된 1990년대 한류드라마콘텐츠의 1차 전성기이다. 몽유서사원형은 1990년대 한류드라마콘텐츠의 고전서사원형으로 선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어야 할 것은 [자료1]-②-㉔의 2000년대 들어서 몽유서사를 서사원형으로 재매개화 한 한국 드라마콘텐츠가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모든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결과물이 모두 한류드라마콘텐츠로 등극했다는 사실이다. [자료1]-②-㉔의 2010년대 제3차 한류드라마 시기를 열어젖힌 〈시크릿가든〉은 연출가와 작가가 모두 동일한 데다, 이 시기 여타의 드라마콘텐츠들과는 달리 주인공인 몽유자가 타임슬립 하는 패턴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1]-②-㉔의 2000년대 드라마콘텐츠들과의 유형적 상사성이 더욱 강하다. 〈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으로 갈수록 꿈과 이계인물의 직접성이 강조되어 몽유록계 몽유서사원형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지만, 〈가을동화〉·〈겨울연가〉와 마찬가지로 유사죽음의 몽유공간으로부터 몽유 상대인물이 현실세계로 타임슬립해 온다는 점에서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파리의 연인〉과 〈시크릿 가든〉의 환상성은 〈옥탑방 왕세자〉를 필두로 타임리프형 몽유서사의 서사적 지표가 액자식 구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된 드라마·영화콘텐츠가 [자료2]-②-㉔의 2010년대부터 붓물을 이루기 이전의 2000년대 한류드라마에서부터 존재해 왔었던 것이 된다. 〈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은 대단원에 가깝기까지 전개되던 이야기가 알고 보니 과거의 꿈이었다는 식으로 몽중서사의 비중이 현실세계의 그것 보다 상대적으로 큰 몽유록계 몽유서사원형 쪽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방영 당시 이러한 결말이 향유층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2000년대를 지배한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가 〈이생규장전〉·〈최생우진기〉·〈만복사저포기〉·〈하생기우전〉이나 〈운영전〉을 제외한 17세기 이후의 대부분의 애정전기소설의 몽유서사원형처럼 현실세계의 서사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을동화〉·〈겨울연가〉였기 때문이다.

<가을동화>· <겨울연가>는 현실적 장벽 혹은 죽음을 이유로 과거에 연인과 헤어졌던 여주인공이 이별한 과거연인을 연상시키는 점이 있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현실적 삶을 지속하나 감정적으로는 과거 연인과 함께 하던 과거에 고착된 고립된 삶을 지속하며 과거의 사랑을 무한 반복하는 유사몽유를 지속하던 중, 죽은 줄 알았던 과거 연인과 재회한 순간부터 유사죽음의 몽유가 현실화 되어 마치 이미 죽었던 연인이 타임리프해 현재로 온 것 같은 폐쇄된 만남을 일시적으로 가지지만 자신이 불치병으로 죽은 이후 남주인공도 자살하거나 혹은 기억상실에 걸린 남주인공과 함께 폐쇄된 유사죽음의 몽유공간에 자기유폐를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가을동화>· <겨울연가>는 유사몽유와 유사타임리프에 그칠 뿐 직접적인 몽유나 시간 뛰어넘기의 타임리프가 명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 시공간의 비중이 전체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사가 백일몽이었음이 드러날 뿐 아니라 죽은 자가 직접 현실세계에 나타나서 전체 서사의 전개 방향을 좌지우지한 사실이 대단원 부분에서 확인되는 <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의 몽유록계 몽유서사원형의 양식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결말 방식은 상당히 낯선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처럼 애정전기소설계에 속하면서도 몽유록계 몽유서사원형적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재매개화콘텐츠의 출현이 2000년대에 돌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그렇지만도 않다. 동시대에는 영화 <시월애>와 <번지점프를 하다>·<중독>이 있었고, 1900년대에는 <은행나무침대>·<접속>이 있었다. <시월애>·<번지점프를 하다>·<중독>·<은행나무침대>·<접속>은 모두 과거 유사죽음의 몽유공간에 속한 인물이 현재로 직접 타임슬립 하여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현재 인물에게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선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옥탑방 왕세자> 이후로 201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직접적인 타임슬립형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들에 대한 선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2010년대 드라마콘텐츠의 성행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은 1990년대 한류 시작기 영화콘텐츠로부터 예비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1]-②-㉔의 2010년대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는 영화 <어느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드라마에 집중되어 있다. 재매개화 된 몽유서사원형에서 타임슬립의 직접적 명징성이 2000년대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바, 타임슬립형 몽유의 방향성·행위성·반복성·재생성에 따른 범주별로 각기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해 볼 수 있다.

[자료2]

① ㉔<신의><나인>

㉕<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가을동화><번지점프를 하다><봄날은 간다><중독><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인현왕후의 남자><옥탑방 왕세자><별에서 온 그대><구가의 서><너의 목소리가 들려><구르미 그린 달빛><푸른 바다의 전설><도깨비><사임당-빛의 일기><어느 날><빙구><시그널><터널><다시 만난 세계><하백의 신부><듀얼><당신이 잠든 사이에><보그맘>

㉖<시월애><응답하라1997><명불허전><내일 그대와><맨홀-이상한 나라의 펄>

②㉔<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가을동화><시월애><번지점프를 하다><봄날은 간다>

<중독><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인현왕후의 남자><옥탑방 왕세자><응답하라 1997><신의><별에서 온 그대><너의 목소리가 들려><푸른 바다의 전설><구르미 그린 달빛>, <도깨비><명불허전><사임당-빛의 일기><어느 날><빙구><내일 그대와><하백의 신부><맨홀-이상한 나라의 펄><보그맘><당신이 잠든 사이에>

㉠<구가의 서><보그맘>

㉡<나인><너의 목소리가 들려><시그널><터널><듀얼><다시 만난 세계><당신이 잠든 사이에>

③ ㉠<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가을동화><번지점프를 하다><봄날은 간다><중독><겨울연가><파리의 연인><어느 날><빙구><다시 만난 세계><듀얼><보그맘><당신이 잠든 사이에>

㉡<시월애><응답하라 1997><신의><시크릿 가든><인현왕후의 남자><옥탑방 왕세자><별에서 온 그대><나인><너의 목소리가 들려><구르미 그린 달빛><구가의 서><푸른 바다의 전설><시그널><도깨비><명불허전><사임당-빛의 일기><내일 그대와><터널><하백의 신부><맨홀-이상한 나라의 펄>

④ ㉠<구미호><접속><시크릿 가든><응답하라 1997><신의><너의 목소리가 들려><시그널><어느 날><빙구><듀얼><보그맘><당신이 잠든 사이에>

㉡<은행나무침대><가을동화><번지점프를 하다>

㉢<시월애><중독><겨울연가><파리의 연인><인현왕후의 남자><옥탑방 왕세자><별에서 온 그대><나인><구가의 서><푸른 바다의 전설><도깨비><명불허전><사임당-빛의 일기><내일 그대와><터널><하백의 신부><맨홀-이상한 나라의 펄>

(이하 구두 설명)

3. 한·중 공유서사문학콘텐츠의 통시적 공유맥락과 한·중 드라마·영화콘텐츠의 영향관계

일단, [자료1]에서 제시했었던 한국 공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 37편 중에서 영화콘텐츠 6편을 제외한 31편 중 59%를 차지하는 18편이 현재까지도 바이두·웨이보 등의 중국 메이저 포털에서 인기 한류드라마로 높은 페이지 뷰와 검색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제는 한류드라마의 고전이 된 <가을동화>와 <겨울연가>는 각각 <남색생사연>과 <대문대면>이란 제목으로 현재까지도 재방송되며 인기 한류드라마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을동화>는 중국 드라마콘텐츠계가 <사랑이 뭐 길래로>의 1992년 중국 방영으로 시작된 한류드라마콘텐츠의 클리셰를 내면화 하여 중국 청조(淸朝)의 역사적 시공간·인물·사건을 첨가함으로써 토착화 시킨 1998년 히트작 <황제의 딸1>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한 이래, <황제의 딸2> (1999)·<후궁견환전>·<보보경심> 으로 이어지는 성공작들을 연속해서 내놓으면서 한국 내 향유층을 확대해 나가던 2011년에도 <일불소심애상니>로 리메이크될 정도로 중국 내에 굳건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을동화>와 <겨울연가>는 나말여초부터 출발한 애정전기소설계 공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한 드라마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바, 중국 역시 한국의 나말여초와 동시대인 당대(唐代)에 현실세계로 온 이계인물과 주인공인 공유자가 상호교류 함으로써 현실세계 속에서 유사죽음의 공유시공간을 일시적으로 구축하는 전기소설계 공유서사문학의 전성기를 공유했던 경험이 있다. 이계인물은 현실세계 인간과의 교류를 지향하나 현실세계의 인간이

이를 수용하여 일치감을 구가하지 못하면 애정을 중심으로 파악했을 때 변심계의 몽유서사원형이 형성되는 바, 현실세계의 인간이 이계인물을 기괴의 존재로 규정하고 퇴치하고자 하는 <고경기>, <보강총백원전>, <신도징>이나 자신의 현실세계로 우연히 꿈처럼 들어온 상대과 사랑을 나누지만 그녀를 진정한 애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주인공의 변심에 의해 애정이 파탄나는 <곽소옥전>·<앵앵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도징>에서 현실세계의 인간과 진심으로 상호교류하길 원치 않았던 호녀가 인간과의 진정한 합일을 원하게 되면 나말여초의 <김현감호>가 되는 바, <유의전>·<유선굴>·<이혼기>는 나말여초의 <김현감호>·<최치원>·<조신>이나 15·6세기의 <취유부벽정기>·<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하생기우전>처럼 현실세계의 인간이 이계인물과의 일치감을 지향하며 현실의 시공간 속에서 유사죽음으로서의 몽유적 애정을 성취한 애정전기소설의 몽유서사원형이 되며, <유의전>·<유선굴>·<이혼기> 여주인공들의 이계성이 표면적으로 현실화 되어 계층격차로 구현되면 <유씨전>·<곽소옥전>·<이왜전>·<장한가전> 등이 되어 <운영전>·<정생전>을 제외한 17-19세기 애정전기소설처럼 신분하위의 여주인공이 순전히 현실세계 속에 일시에 구축된 유사죽음의 몽유시공간 속으로 들어와 남주인공과의 계층 초월적인 만남을 가지는 애정전기소설의 몽유서사원형과 같은 형태가 된다.

<가을동화>·<겨울연가>는 물론 이 두 작품 보다 상대적으로 몽중·명계와 같은 이계와 몽중인·사자와 같은 이계인물의 출현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몽유의 타임슬립성 역시 상대적으로 보다 전면화 되어 있는 <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의 중국 내 인기는 9세기부터 시작된 한·중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의 공유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이 9세기 이후의 한국과 중국 사이에 글로컬 한 서사형질로 공유되고 있었던 서사적 전통이 <가을동화>·<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을 현재까지도 중국 내 한류드라마 인기방영작 리스트의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중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의 글로컬 한 역사적 공유 맥락 속에서 <가을동화>·<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이 중국 한류드라마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중국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의 영향관계가 존재한다. 바로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홍콩 영화콘텐츠가 한류 이전 한국에 열광적으로 수용되어 내면화 된 결과 한류 드라마·영화콘텐츠의 탄생에 일정한 자양분을 제공한 층위가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1997년 홍콩반환 이전의 홍콩 영화는 공산주의 관념의 선전과 합리화란 목적 수행을 위해 관용홍보콘텐츠의 일종으로 제작·유통되었던 당시의 중국 영화콘텐츠와 전혀 다른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향유되었던 콘텐츠다. 하지만 홍콩반환 이후 1990년대까지 홍콩 영화계가 축적한 상업영화 제작의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한류 이후 중국 드라마콘텐츠의 1990·2000년대의 제1차·제2차 한류드라마·영화콘텐츠를 내면화 한 중국 드라마·영화콘텐츠의 상업화가 전면화 되었다는 점에서 홍콩 영화콘텐츠는 중국 드라마·영화콘텐츠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세기 이후로 한국과 공유맥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중국의 몽유서사원형은 1841년

영국의 홍콩 점령 이후 사회주의 중화민국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서구 자본주의 도시국가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산업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갔던 홍콩 영화콘텐츠 창작 기재 내부에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을동화〉·〈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이 중국 한류드라마로 등극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 인기를 끌며 향류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드라마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제1차 한류가 성립된 1990년대까지도 홍콩영화는 한국 내에서 상업콘텐츠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있었다. 한국드라마가 제1차 한류기인 1990년대부터 제3차 한류기인 2010년대 현재까지도 국내 상업콘텐츠의 중심부에서 단 한 차례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데 비해, 한국영화는 1990년대까지 국내에서 웰메이드 상업영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영화계 전용의 예술영화에 한해서만 잠깐씩 주목을 받을 뿐으로, 홍콩영화나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상업영화로서는 한 수 처지는 2류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문소설서사원형·재자가인소설서사원형·민중영웅서사원형·가정소설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드라마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1990년대 제1기 한류기에는 2000년대 제2기 한류기의 걸작인 〈가을동화〉·〈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의 탄생을 예비하는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 드라마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을동화〉·〈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으로 이어지는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의 스트림은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1990년대 한국영화 〈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이다. 9세기부터 서사적 유전형질로 유전되어온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이 1990년대 한국 비주류콘텐츠로 존재했던 영화 산업계에서 먼저 재매개화 되어 당시 영화계로서는 상당한 관객수를 동원했던 일련의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콘텐츠로서의 〈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을 산생시킨 후에, 장르를 전환하여 2000년대 한류드라마인 〈가을동화〉·〈겨울연가〉·〈파리의 연인〉·〈시크릿 가든〉으로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2000년대 한국영화계는 2001년 8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천만관객 시대를 열어젖힌 〈친구〉 이래로 〈실미도〉·〈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 불할 수 있듯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실화를 소재로 하여 리얼리즘 추구의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1990년대 〈구미호〉·〈은행나무침대〉·〈접속〉에서 가능성이 확인되었던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의 재매개화콘텐츠는 당초의 영화에서 드라마로 주된 장르를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990년대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 영화콘텐츠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출현한 동시에 중국 한류드라마로서의 정점을 찍어버린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 드라마콘텐츠 출현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거리가 도출될 수 있다. 한국영화콘텐츠 산업계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일련의 1990년대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 재매개화 영화콘텐츠 산생에 영향을 미쳤을 제3의 콘텐츠 스트림이다. 여기서 주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9세기 이래로 한국과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의 공유 맥락을 형성해온 중국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하여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영화시장에서 막강한 티켓과위를 유지해 왔음은 물론 한국대중문화계 전반에 수용되어 영향을 미쳐온 홍콩영화다.

우선, 1990년대 국내에서 상영되어 히트한 홍콩영화의 리스트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3]

<프로젝트A><쾌찬차><천녀유혼1><열혈남아><폴리스스토리1><몽중인><비룡맹장><폴리스스토리2><가을 날의 동화><첩혈쌍웅><지존무상><천녀유혼2><천장지구><아비정전><소오강호> <유금세월><천녀유혼3><중횡사해><황비홍1><황비홍2><폴리스스토리3><동방불패1><백발마녀전1><황비홍3><칭사><백발마녀전2><황비홍4><중경삼림><양축><타락천사><폴리스스토리4><침밀밀><반생연><성월동화>

[자료3]의 34편 중 <프로젝트A>·<쾌찬차>·<폴리스스토리1>·<비룡맹장>·<폴리스스토리2>·<지존무상>·<소오강호>·<중횡사해>·<황비홍1>·<황비홍2>·<폴리스스토리3>·<황비홍3>·<황비홍4>·<폴리스스토리4>의 14편을 제외한 20편이 중국의 애정전기소설계 몽유서사원형을 재매개화 한 영화콘텐츠이다.

(이하 구두 설명)